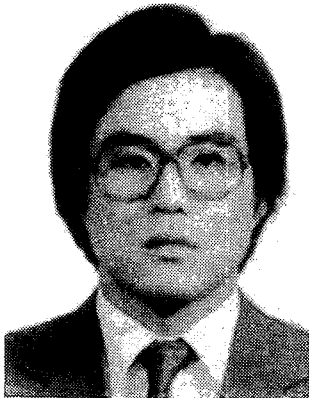




實相寺를 保存한 智慧



李 相 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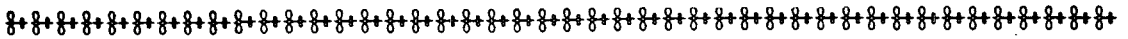
〈中央大 法大 助教授·法博〉

최근 住岩댐 導水터널 工事 계획을 둘러 싸고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은 新聞紙上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다. 住岩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댐의 물을 順天·光陽의 工業園地의 工業用水로 사용하기 위하여 曹溪山을 관통하는 導水터널을 만들어서 順天 쪽의 이사천으로 보내고 이사천에 댐을 다시 건설한다는 이 導水터널 工事計劃을 순수한 功利的인 또는, 工學的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히 天才의 일 것이다. 그러나, 曹溪山에는 松廣寺와 仙岩寺, 그리고 몇몇 유서깊은 암자가 있는 유서깊은 佛敎의 聖地이다. 따라서 導水터널이 완공되면 수려한 山勢는 말할 것도 없고 松廣寺 주변의 景觀마저 크게 해치고 말 것이며, 또한 曹溪宗의 發源地인 曹溪山脈을 끊어 버리게 될 것이라 하여 佛敎界는 計劃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中央日報, 1985.10.10 10면 기사)

佛敎 寺刹의 環境이 開發의 위협을 받은 것은 비단 문제의 住岩댐 導水터널 工事計劃이 처음만은 아니다. '79년의 迦智山 道立公園計劃, 그리고 '82년의 회양산 道立公園計劃도 모두 佛子들의 반대로 가가스로 開發의 一步前에 寺刹의 環境이 保存된 예이다. 그러나 중요한 寺刹이 송두리째 물속에 잠길뻔 한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昨年에 있었던 實相寺 事件인데 비록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여러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바 정리하여 볼까 한다.

II

實相寺는 全北 南原郡에 위치한 寺刹로 新羅 興德王때인 서기 828년에 창건된 九山禪門中 최초의 寺刹이며 禪宗의 發祥地이다. 또한 實相寺는 우리나라의 國運을 빌기 위한 護國寺刹로서 우리나라의 땅의 精氣가 지리산 천왕봉을 거쳐 日本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4천근이나 되는 鐵製如來座像을 봉안하였고 3層雙石塔과 지금은 火災로 주춧돌만 남아있는 5層木塔



을 세워 地脈을 눌러 놓았다고 한다. 한편 實相寺가 興하면 우리나라가 興하고 日本이 亡하며, 반면에 實相寺가 亡하면 우리나라가 國難에 빠진다고 하여 法堂의 범중에 日本地圖를 그려 놓고 그곳을 朝夕으로 쳐 日本의 侵略을 저지하고 한 우리 祖上의 애뜻한 사연이 깃들어 있는 寺刹이기도 하다.

實相寺는 창건 당시에는 30 여동에 이르는 大寺刹이었으나 世祖때 火災로 전소하였으며, 숙종때 증창되었고 現存建物は 高宗 21年 (1884년)에 증창된 것이다. 이같이 유서깊은 實相寺는 國寶級 文化財 1점 (百大庵 三層石塔)과 寶物級 文化財 11점 그리고 地方文化財 2점을 소유하고 있어서 단일 寺刹로서 우리나라의 寺刹 중 가장 많은 文化財를 소장하고 있다. 따라서 實相寺는 많은 사람에게 그다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原型이 잘 보존된 文化財를 많이 가지고 있는 寺刹로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발상지로서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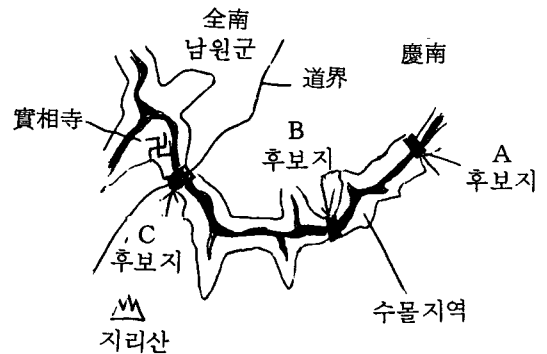
그러나 찾아 오는 관광객도 별로 없던 이 實相寺에 실로 큰 변혁이 닥쳐 왔는데 이것이 바로 威陽댐 건설 계획이다.

III

威陽댐의 건설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9년에完工된 南江댐이 빈약한 탓으로 用水供給과 洪水調節能力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다. 즉, 이러한 南江댐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南江의 上流에 3~4개의 補助댐을 설치할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主務官廳인 建設部和 産業基地開發公社는 威陽댐의 立地問題를 두고서 수년간 연구를 하였는데 3개의 候補地가 선정되었고, '84년 봄

에는 그중 C 候補地가 가장 有力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産業基地開發公社는 구체적인 開發計劃의 확정시기는 '84년 말이라고 밝혔지만 C 候補地의 “選定說”은 論難을 일으켰는데 이는 C 候補地에 댐이 건설될 경우 實相寺가 완전히 水沒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A, B, C 候補地의 지점을 보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候補地가 가장 上流에 위치하고 있으며 A 候補地가 가장 下流에 속하고 있다. 또하나 주의할 점은 A 候補地나 B 候補地에 댐을 세우게 되면 慶尙南道 지역이 水沒되지만 C 候補地에 댐을 세우는 경우에는 慶尙南道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全羅南道의 土地가 水沒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하튼 이들 세 候補地에 댐을 건설할 경우의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C 候補地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最大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自明하다.

이어서 각 위치에 댐을 건설하는 경우의 水沒

	A 후 보 지	B 후 보 지	C 후 보 지
댐 水 位	240 m	300 m	360 m
발 전 낙 차	100 m	120 m	180 m
발전시설용량	5 천 8 백만 KWH	6 천 9 백만 KWH	9 천 3 백만 KWH
용 수 공 급	9 천 8 백만 ㎥	1 억 2 천 3 백만 ㎥	1 억 4 천 5 백만 ㎥

豫想 現況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A 후보지	B 후보지	C 후보지
水沒部落	6 개	7 개	11 개
家 口 數	150호	300호	600호
人 口 數	900명	1,800명	3,600명
농 경 지	60HA	95HA	350HA
文 化 財	없 음	2 점	17점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候補地에 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惠澤(benefit)도 제일 크지만 희생(cost)도 제일 크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점은 實相寺가 완전히 水沒되게 되어 國寶 1點, 寶物 11點 등 17점의 文化財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實相寺 자체는 그대로 水沒되든지 또는 마치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때 누비아遺蹟을 이전하던 式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과연 C候補地에 댐을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특히 C候補地에 완공된 댐의 발전량과 용수공급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량과 용수공급량의 1%에서 훨씬 미달하며 A 또는 B 후보지와 C 후보지의 발전량과 용수공급량의 差異는 전체의 0.1%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특히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C 후보지에 댐을 세운다는 것은 사소한 經濟的利益을 위하여 貴重한 文化財와 많은 사람의 故郷을 너무나 경솔하게 앗아가는 조치라는 非難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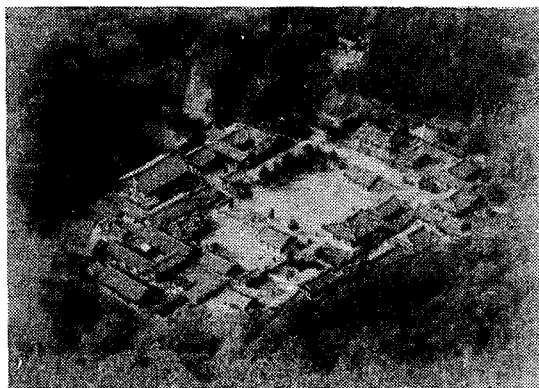
사실, 우리 政府는 C 후보지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計劃을 確定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日本國際協力團의 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건설부의「水資源綜合開發計劃 報告書」가 威陽댐의 適地는 C 후보지라고 하였기 때문에 C 후보지에 댐이 건설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아니 생길 수 없었다. 따라서, 1983년 가을에 實相寺 主持 손혜광 스님

은 關係要路에 댐 건설 예정지의 變更을 촉구하는 陳情을 제출하였고 1984년 초에는 드디어 매스컴의 注目을 받게 되었다. 1984년 1월 14일자 서울신문이 實相寺의 水沒위기에 대하여 간단한 기사를 내어 보냈고, 특히 2월 3일자 中央日報의 칼럼「論外論」에서 孔鍾源 논설위원은 “實相寺의 水沒”이란 제목하에 威陽댐의 立地의 再考를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開發 우선의 政策이 60年代 이후 盲目的으로 지배하여 오던 우리나라의 風土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지적할 점은 韓國 佛教의 本山이라할 曹溪宗은 實相寺 問題에 관하여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설악산 神興寺에서 殺人事件이 났던 것이 이 즈음이 아니었나 한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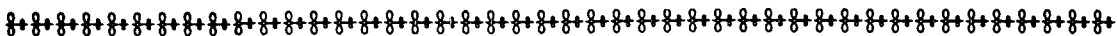
이후 實相寺와 威陽댐의 추이는 자못 奇異하게 흘러 간다.

1984년 5월에 들어서서 威陽댐 등 5개 民資댐의 건설계획은 사실상 白紙化되고 말았다. 즉, 당초에 政府는 해외건설업체의 유휴장비와 인원



〈사진은 전남 승주군 송광사 전경〉

을 활용하기 위하여 臨河, 臨溪, 洪川, 威陽, 明川의 5개댐을 民間기업체가 건설하고 政府가 공사비의 50%를 石油安定基金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줄 예정이었는데 換率의 인상으로 石油安定基金 자체가 조성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는 해외건설업체의 중장비 국내반입 허용



방침도 취소하였고 따라서 5個 댐 計劃은 白紙化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實相寺의 水沒危機는 완전히 解決된 듯하였다.

그러나 안도의 순간은 길지 못하였다. 1984년 8월말, 수십년내의 大洪水로 우리나라의 全國이 물난리를 겪었고 이에 따라 洪水를 조절할 수 있는 多目的댐이 부족하다는 輿論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는 그해 9월 위의 5개의 民資댐 건설 計劃을 國家負擔으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威陽댐의 立地問題가 다시 제기되었으며 따라서 實相寺는 또다시 不安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러던 중 實相寺에는 끝내 환희의 순간이 닥쳐 왔다. 1984년 10월, 政府는 實相寺를 史蹟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史蹟指定을 해제하지 않는 한 實相寺를 水沒시킬 수는 없게 되었다. 더구나 그해 여름 개통된 88고속도로로 인

하여 實相寺까지의 교통은 사뭇 편리하게 되었고, 그 후 갈수록 많은 사람이 우리 佛敎界의 禪風의 본거지인 實相寺를 찾게 되었다.

VI

實相寺는 이렇게 保存된 것이다. 實相寺의 保存을 위하여 힘쓴 몇몇 사람의 노력은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文化財 保存의 길을 택한 우리 政府의 지혜도 또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住岩댐 導水터널 工事의 문제점을 보고서 우리 政府는 다시 한번 實相寺를 保存한 지혜를 되살려 보도록 촉구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는 佛敎界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1985년 10월 12일자 中央日報의 「中央春秋」란은 孔鍾源 논설위원의 매우 힘 있는 論說 (“自然 해치는 開發 再考돼야 한다”)을 싣고 있는데 社會의 公器로서의 言論의 역할이 自然環境保存 분야에서 더욱더 증대하기를 차제에 부탁하고자 한다.

(※威陽댐 건설과 實相寺 保存에 관한 상서는 “朴鍾錫 威陽多目的댐 建設과 環境保全, 中央大法政論叢, 제24권(1984) pp. 216~231 참조” 필자인 朴鍾錫은 당시 中央大 4年生으로 관계 당국자와의 인터뷰 및 實相寺지역의 現地踏査 끝에 同 論文을 작성하였고 현재 韓一銀行에 근무 중이다.)

♣ 환경속에 사는 우리
보전하고 보호받자. ♣